

## 부모와 아이가 함께 자라는 곳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초등학교 옆에는 한빛마을센터라는 곳이 있다. 이곳에는 늘 아이들이 북적거린다. 갓 태어난 아기서부터 초등학교에 다니는 형아나 언니들까지 대가족이다. 2009년 세 엄마가 공동 육아를 선언하며 만든 품앗이 공동체가 30여 가정의 100여 명 가족이 함께 하는 지금의 모습으로 발전해 있는 것이다. 한빛마을에서는 아이들만 자라는 것이 아니다. 재능기부 활동을 벌이면서 엄마들도 잠자던 DNA를 깨우며 아이들과 함께 자란다. 경쟁 대신 배려를, 이기주의 대신 사회성을 가르치는 이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푸른 숲의 호흡을 만끽하며 자라고 있다.

### 우리 아이 참교육으로 기르고파...

“사교육비는 점점 올라만 가니 정말 부담스러워요.”  
“유치원에 보낸다고 해도 우리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인성교육을 제대로 시켜 준다는 보장이 없으니.”  
“영어 유치원이니 뭐니 유행한다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애들 인성이잖아 요. 어릴 때부터 공부 스트레스 주지 말고 제대로 양육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차라리 옛날 대가족제가 아이들 교육시키기에는 더 좋은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비슷한 고민을 가진 세 엄마가 모였다. 사교육비 부담, 인성보다는 경쟁 위주의 교육,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의 부재 등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6살 난 사내아이들을 기르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진 젊은 엄마들이었다. 지금 한빛마을센터 대표를 맡고 있는 김미희 씨도 그 세 엄마 중의 한 명이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우리 같이 애를 키워볼까요? 공동 육아 말이에요. 옛날 마을에서 품앗이 하듯이!” “아! 좋은 생각이에요. 수학을 전공한 엄마는 수학을 가르치고, 영어를 전공한 엄마는 영어동화책을 읽어 주고, 또 한 엄마는 미술과 놀이 활동을 지도하고!”

2009년 세 엄마의 의기투합으로 시작된 한빛마을센터는 품앗이 공동체였다. 별도의 공간도 없이 서로의 집을 교대로 공동 육아의 공간으로 내놓고 거기서 미술 활동, 영어 동화책 읽어 주기, 요리 활동, 체험 활동 등을 하면서 아이들을 함께 키워나가기로 한 것이다. 모두 6살 또래의 사내아이들이라서 아이들끼리도 의기투합이 잘되었다.



공동육아품앗이놀이터

세 아이를 함께 품앗이로 기르던 한빛마을공동체는 1년 후 그 영역을 조금 더 넓히게 되었다. 김미희 씨 가정에서 동생이 되는 딸아이가 자기도 참여시켜 달라고 졸랐기 때문이다. 한빛마을센터 김미희 씨는 이렇게 설명한다.

“1년쯤 공동 육아를 체험해 보면서 그 유익함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기 때

문에 딸 아이에게도 필요하겠다 싶었습니다. 다른 엄마들과도 의논을 해서 여자 아이들을 모아 여아반을 만들었죠. 놀이나 학습 프로그램도 여자아이들에게 맞는 것으로 조절하고요.”

여자아이들은 핑크공주로 불리며 엄마들에게서 많은 사랑을 받았다. 모두가 한 가족처럼 서로 정을 주고받으며 함께 지내는 동안 조금씩 다른 가족과도 함께 하는 품앗이 모임이 늘어났다.

### 맘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품앗이로 시작한 한빛마을센터의 초창기 때 가장 큰 고민은 공간이었다.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아이들이 모여 있으니 어느 곳에 가도 시끌벅적했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수가 조금씩 늘어날수록 이웃 사람들의 항의도 점점 세져서 더 이상 가정에서 아이들의 공동 육아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

“한때는 교회 건물의 한 공간을 빌려서 해보기도 했어요. 그러나 교회 행사 등이 있으면 공간을 비워 주어야 하니 불편이 컸죠. 우리만의 공간, 우리 아이들이 맘껏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방과후 교실 (책 읽어주기, 숙제지도, 독서지도, 미술활동, 요가, 전통놀이활동, 공감놀이, 모둠활동 등)

맘껏 뛰어 놀면서 인간답게 자라도록 하기 위해 시작한 공동체였는데 맘껏 뛰어놀 수 없다니, 김미희 씨를 비롯한 엄마들의 마음이 편치 않았다. 서울특별시에서 실시하는 마을공동체 돌봄지원사업에 지원해 보았지만 전용 공간이 없어서인지 1차 심사에서 탈락하고 말았다. 이처럼 보증금, 월세 등 경제적인 부담을 안고 덜컥 공간을 마련할 상황은 못 되었지만, 엄마들이 아이들을 위해 용기를 내기로 했다. 심사일반으로 보증금을 마련한 것이다.



방과후 교실

2012년 9월 드디어 은평구 역촌초등학교 후문 앞 건물의 2층에 한빛마을센터가 정식으로 등지를 틀었다. 서로의 집에서 돌아가면서 아이들을 돌보아야 했던 ‘집 없는 설움’을 끝내고 한빛마을센터만의 등지를 마련한 것이다.

“공간을 마련하긴 했으나 여전히 운영비 등의 부담이 크게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특별시의 마을공동체 돌봄지원사업에 다시 2차 도전을 했죠. 전용공간을 마련해 두어서인지 두 번째에는 다행스럽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시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받게 된 것이지요.”

운영비 등에 대해 부담을 안고 있던 김미희 씨는 서울특별시의 지원금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한다. ‘돌봄지원사업’이란 서울특별시가 2012년 8월부터 육아 품앗이를 하고 있는 모임을 대상으로 연간 2,000만~4,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빛마을센터에서는 매월 200여만 원을 지원받아 공동양육 공간 운영비, 수업 지원비 등에 보탬 수 있었다.

전용공간을 마련한 데다 운영비까지 지원을 받게 되자 한빛마을센터 운영이 더욱 탄력을 받았다. 또한 마을 주민에게도 공간을 개방하여 지역 사회의 아지트로써 언제든지 주민들이 쉬었다 갈 수 있고 또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 이모 선생님들 활약하다!

한빛마을센터는 공동육아 공간이자 맞벌이 부부 아이들의 거점이다. 더 나아가 엄마들의 교류와 휴식을 위한 쉼터이며, 지역 주민들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는 마을 사랑방의 역할까지 함께 하고 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예닐곱 살 아이들을 주로 맡아보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0세부터 초등학교까지 폭넓은 연령층의 아이들을 돌보는 공동육아 품앗이 공간이 되었다.

아이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언제든지 이곳에 와서 서로 친형제처럼 어울려 놀 수 있다. 이곳에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엄마들도 많이 있다. 서로 돌아가며 재능 기부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고 운영비를 십시일반으로 모아 간식과 식사를 제공해 주는 엄마들도 있다. 아이들은 이들을 이모선생님이라 부른다. 김미희 씨는 한빛마을센터를 움직이는 주역들은 이모선생님들이라고 말한다. 엄마들의 재능기부의 힘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다. 아이들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 한빛마을센터 이모선생님들은 대단하다. 아이디어가 샘솟는다. 이모선생님들이 디자인한 놀이는 무척 재미가 있다. 힘들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재미있어 하면 이모선생님과 엄마도 덩달아 즐거워진다고 하니, 어떨 때는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든다.”

“이모선생님들이 참 감사하다. 특히 임신하신 이모선생님은 몸이 힘드셨을 텐데 요가와 전통놀이까지 가르쳐 주시다니. 우리랑 놀아주신 많은 이모선생님들께 감사하다고 말해 드리고 싶다. 아참, 임신한 이모선생님들이 아기를 낳아서 한빛마을센터에 동생이 들어나 더 생겼다.”

한빛마을센터에서는 아빠들도 공동육아의 주체로 참여하고 있다. 엄마들만큼은 아니지만 공동육아의 철학을 공유하고 함께 나누기 위해 노력하는 편이다. 특히 매년 실시하는 1박2일 캠프 때가 주로 아빠들이 활약하는 시기이다. 아빠들도 엄마들만큼이나 수다를 잘 떠난다. 캠프를 가게 되면 아빠들끼

리 모여 새벽까지 도란도란 아이들 키우는 이야기를 하느라 날을 지새우곤 하니까 말이다. 매년 얼굴을 맞대고 캠프를 하다 보니 이제는 모든 가정이 한 가족처럼 정이 들어서이기도 하다. 아이들은 특히 이 1박2일 캠프를 기다린다. 평소에는 많이 놀 수 없는 아빠와 자연 속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아빠의 요리솜씨를 음미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때다.

## 좀더 전문적인 교육으로!

한빛마을센터가 30평 남짓한 지금의 전용공간에 등지를 뜬 다음에 가장 많은 변화를 보인 것은 프로그램이었다. 집안에서 할 때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데도 많은 제약이 따랐지만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생기자 좀 더 자유롭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은 ‘한빛합창단’과 ‘축구단’이다.

한빛합창단은 엄마와 함께 하는 합창단으로 6세부터 초등학교까지의 아이들로 이뤄져 있다. 2012년 11월 창단하여 매주 금요일 연습을 하고 창단한 지 두 달 만에 한빛마을 가족파티 때 정기연주회를 갖기도 했다. 2013년에는 은평구청장과 함께 하는 타운미팅 때 식전행사로 공연을 갖기도 하고 마을 축제와 지구의 날 행사, 서울마을박람회의 대합창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한빛축구단

한빛합창단

한빛마을 행복나눔 바자회

또한, 2013년 5월에 시작한 달빛축구단도 인기다. 이 축구단은 남자아이 뿐만 아니라 여자아이들도 함께 뛰는 축구단이다. 축구경기가 있는 날은 온 가족이 총출동한다. 달빛축구단에 끼지 못하는 어린 동생들은 별빛응원단이 되어 열렬한 환호와 응원을 보낸다. 언니 오빠들을 따라 흥내도 내보고 고깔로 모래놀이를 하기도 한다. 엄마들도 저마다 유모차를 끌고 나와 함께 공놀이도 한다. 한 골이라도 들어갈라치면 합성 소리에 동네가 떠내려갈 듯하다.

2014년에 들어서는 새롭게 개발한 프로그램 중에서는 ‘영어로 수다’가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영어로 수다를 착안하게 된 데에는 엄마들의 제안이 결정적이었다.

“엄마들이 자연스러운 생활 속의 영어 교육을 시키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강압적이고 학습 위주의 영어 말고요, 자연스러운 놀이처럼 배울 수 있는 영어 말이에요.”

몇몇 엄마들 사이에서 이런 제안이 들어온 것이다. 김미희 씨 역시 요즘 엄마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지나친 경쟁 교육의 폐해가 없는 형태의 영어 교육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영어회화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기로 했다.

“다른 학원의 영어 교육과는 차별화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영어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아이와 엄마가 함께 생활 속에서 영어를 배우도록 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었죠. 일단 필리핀에서 온 영어 강사를 영입했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영어로 말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영어만을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아이들의 나이와 엄마들에게 눈높이를 맞추어 수다를 떨 듯이 편안하게 접근하는 게 ‘영어로 수다’의 장점이다. 또한 아이들과 엄마가 함께 소통하면서 참여할 수 있다는 점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 다른 명물은 1년에 두 번 정도 열리는 ‘한빛가족파티’이다. 각 가정에서 음식을 준비하여 다 같이 정도 나누고 아이들과 엄마들이 준비한 합창단 정기연주회도 열고 연극이나 장기자랑 등의 공연도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나

누는 것이다.

반딧불 탐험단은 어린 꼬맹이들에게 인기가 많다. 매주 마을 뒷산인 봉산이나 가까운 이웃마을의 백련산, 안산, 북한산계곡, 월드컵공원 등을 다니며 도심 속 생태 관찰도 하고 마음껏 뛰어다니며 자연과 함께 호흡하는 시간을 갖곤 한다.

햇빛봉사단은 이웃의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들에게 김장 담가 드리기, 바자회 등을 통해 마음을 나누고 있으며, 앞으로 경로당, 요양원 등을 방문해 공연도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웃과 더불어 살며 봉사하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줄 예정이다.

그밖에도 한빛마을센터는 방과 후 교실, 마을축제 및 바자회, 한빛마을꿈축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아이들의 시각으로 본 한빛마을센터

“이제 가족이 된 친구들과 이모선생님을 하루라도 못 보면 보고 싶어진다. 우리 식구들이 늘어났다. 특히 동생들이 많이 생겼다. 툭툭거리며 싸우는 친구들도 가끔 있었다. 그래도 동생이 많이 생겨서 정말 좋다. 식구들이 늘어나면 재미난 게 더 많아질 테니까.”

“한빛마을센터가 마을학교가 되었으면 좋겠다. 재미있는 이곳이 학교가 된다면 학교 가는 게 즐거워질 것 같다. 매일 매일 학교 오는 게 꿈 같을 것 같다.”

아이들의 한빛마을센터 자라는 끝이 없다. 그럴수록 한빛마을센터의 가치는 소중해지지만 김미희 씨의 고민은 적지 않다. 일단 운영비 부담이 크다. 2012년부터 서울시의 돌봄지원사업의 혜택으로 월 200여만 원씩 지원을 받았지만 그것도 3년 기한이 거의 끝나서 더 이상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앞으로 그 공백을 어떻게 메워 나갈지가 고민이다. 수익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아이들 교육에만 전념하다 보니 별다른 수입원이 있을 리가 없다. 또한, 한빛마을센터를 이용하는 가족들에게는 상당히 저렴한 최소 비용만을 받기 때문에 운영비의 공백을 메워 나갈 일이 더욱 걱정이다. 그러나 김미희 씨는 한빛마을센터를 통한 교육을 포기할 수가 없다. 공동육아 교육의 효과를 오랜 세월 속에서 직접 보아왔기 때문이다.

“한빛마을센터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협동심, 배려심 등은 그 어떤 아이들에 비해서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합니다. 수십 명이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 속에서 자라다 보니 자연스럽게 함께 어우러지는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빛마을센터에 아이를 맡기는 엄마들이 “아이가 이곳에 오고부터 달라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그 이유를 김미희 씨는 공동체 생활에서 찾는다. 집에서는 외동이고 막내라도 이곳에 오면 형제자매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아지고, 이모선생님들도 많이 있는 대가족 속에서 아이들 스스로 남을 배려하고 양보할 줄 아는 협동심, 공동체 의식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한빛마을센터에서는 아이들만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엄마들이 공동 육아를 통해 재능기부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좋은 계기가 되어 자기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기도 합니다. 자신감을 회복하여 더 나은 삶을 위해 새로운 도전을 하는엄마들도 종종 있습니다. 한빛마을센터는 아이와 어른이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곳이니깐요.”

약 30여 가정, 100여 명의 가족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한빛마을센터는 내 아이뿐만 아니라 이웃의 아이도 함께 돌보며 아이와 부모가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육아 공동체이다. 수십 명의 아이들이 한 형제가 되어 함께 생활하는 곳이기에 날마다 크고 작은 사건들이 발생하는데 그 또한 함께하는 방법을 배워 나가는 소중한 기회가 된다. 가정과는 또 다른 행복을, 학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한빛마을센터에서 아이들은 추억을 만들고 어른들은 동심을 배운다. ✨

Interview

김미희 / 한빛마을센터 대표

“마을 전체가 한 가족!”

Q. 한빛마을센터를 오래도록 운영하고 계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처음에는 이렇게 오래 계속하게 될지 몰랐는데 하다 보니 뱃속의 아기가 세상에 나오고, 기어 다니던 아이가 걷게 되고, 걷던 아이가 뛰고, 뛰던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마치 한 가족처럼 유대감이 생기고 어느 연령대를 중요하지 않다고 자를 수가 없더라고요. 계속해서 같이 살아간다는 마음으로 한빛마을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Q. 한빛마을센터를 운영하는 데 고충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A. 규모가 커지다 보니 운영비의 문제가 제일 큼니다. 수익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주변에서 후원을 해주려는 분도 가끔 있지만 복지시설이 아니다 보니 기부금 영수증 발급도 해드릴 수가 없어서 후원을 받는 것도 그리 원활치가 않거든요. 그래도 아이들이 티 없이 맑게 자라는 걸 보는 게 가장 큰 보람이에요.

Q. 한빛마을센터에서 엄마들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A. 처음부터 품앗이 형태로 시작했으니까요. 엄마들 모두 재능기부의 형식으로 십시일반 도와주고 계세요. 물론 많이 도와시는 분도 있고 형편상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지만요. 특히 늘 나오셔서 같이 청소하고 식사 준비해 주시고 프로그램 운영도 도와주시는 엄마들이 계셔서 큰 힘이 됩니다.

Q. 한빛이란 이름은 누가 어떤 뜻으로 지으신 건가요?

A. “하나의 빛이 되자.”는 뜻에서 제가 지었어요.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아이들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 빛을 비추는 아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었죠. 또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도록 바르게 가르쳐야겠다는 다짐의 마음도 담았어요. 경쟁보다는 바르게 크는 것, 또 바르게 키우는 것을 가장 우선 순위에 두었습니다.